

가을철 보일러 시장 점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해 동안 보일러와 관련한 배액 구제접수 건
총 118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보다 31.1%가 증가

보일러 총체적 문제점 산적

1982년 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가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다. 도입기와 성장기 그리고 현재의 보일러 시장 완숙기까지 길지 않은 보일러 역사속에서 품질, A/S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해 동안 보일러와 관련한 구제접수 건은 총 118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보다 31.1%가 증가했다.

보일러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스보일러가 45건으로 가장 많고 태양열온수기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A/S와 관련된 건이 6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했다.

불만사항은 지난해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각 제조사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네티즌들의 보일러 사용에 대한 불만이 통신상에

서 뜨자 모 제조사는 급기야 게시판 폐쇄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잦은 보일러 고장에 화가 난 한 소비자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직접 산자부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는 일도 있었다.

A/S가 너무 느리고 제품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비자 불만은 그 후에도 산자부에 여러 차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이 단지 지나친 제품불신 현상이 빚어낸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3년간 보일러 사고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보일러와 관련된 사고는 모두 76건이며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미비와 제품의 노후화 및 불량에 의한 것이다.

난방수 순환 계통과 전자밸브 등에 이물질이 막히거나 배기관 고장 등 제품불량 원인으로 인한 보일러 사고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1%에 이른다.



가스보일러 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20% 정도의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소폭하락하였다.

지난해에는 당초보다 늘어난 90만대가 생산돼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보일러사들의 실적 경영이 극에 달함으로써
연말에 무리하게 밀어내기를 했던 것이 생산량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풀이돼
엄밀한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

보일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른 유형의 사고보다 높은 1건당 1.6명에 이른다. 따라서 보일러 제조사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피해 처리는 수리·보수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환이 16건, 환불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보다 소비자 불만이 더 심각한 경우는 태양열온수기 및 심야전기보일러다.

태양열온수기 및 심야전기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에 비해 고가이지만,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업자들의 선전으로 인해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많다.

그런데 이들 제품은 주로 중소기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방문판매 형태로 공급되는 실정이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원들의 설명에 의존해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제품 하자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의 용량속이기, 가격 부풀리기, 설치방법의 미숙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현재 생산업체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품질수준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보일러 제조사들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마

진폭 감소는 물론 업체 간의 감정·법정싸움까지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확대를 위한 과당 출혈경쟁은 결국 저질제품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술과 품질로 수출로 활로 개척

성장 일로에 서있던 가스보일러 시장은 97년 말 IMF로 주춤하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는 국내 전 산업을 위축시켰으며 특히 가스보일러 보급과 직접 관련있는 건설업에 심대한 타격을 줘 가스보일러 시장도 건설업과 함께 침체의 늪에 빠졌다.

가스보일러 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20% 정도의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소폭하락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당초보다 늘어난 90만대가 생산돼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보일러사들의 실적 경영이 극에 달함으로써 연말에 무리하게 밀어내기를 했던 것이 생산량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풀이돼 엄밀한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도 가스관로 신규 건설이 전년 수준 이하로 줄어들고 신규대체 수요도 감소해 판매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다세대, 빌라 등의 소규모 신축 공사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낙관할 때가 아

나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스보일러 납품실적도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대량 보일러수요처의 납품이, 올해와 내년이 IMF초기 건설경기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개보수 시장을 매우 중요한 타겟으로 만들었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가스보일러 개보수시장의 경우 올해 공사가 완료될 물량은 지난해보다 약 50%정도 늘어난 4만대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물량은 난방방식 전환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이러한 국내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은 각 업체들의 눈을 해외로 돌려 놓으며, 수출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게 했다.

가스보일러 수출은 지난해 87년에 처음으로 3천달러를 기록하며 시작했다.

91년까지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을 보이지 못하다 92년에 1백만달러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94년에 2백82만달러, 95년 2백14만3천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던 가스보일러 수출이 한때 주춤하기 시작했으나 98년 이후 다시 큰 폭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가스보일러 개보수시장의 경우

올해 공사가 완료될 물량은 지난해보다 약 50% 정도 늘어난

4만대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말까지는 소비자 가정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시장 축소현상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시장이 눈에 필만큼 증가하자 업체들도 해당 영업조직을 보다 강화하는 등 판매전략을 강화했다.

또 개보수시장의 성장은 시공업자들이 가스보일러를 선택하던 기존의 관행을 각 제조사들의 다양한 모델을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꿔 놓고 있다. 그러나 개보수 시장에서도 과열경쟁에 의한 출혈적 가격경쟁, 상대업체들을 비방하는 루머를 흘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들이 이뤄지며 가스보일러 시장자체는 혼탁한 양상을 띄었다.

특히 무리한 가격경쟁은 납품가격을 원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형성, 판매량이 늘더라도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도 야기시키고 있다.

으로 성장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내수경기의 불황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각 제조사들의 해외진출 노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7백60만8천달러를 기록해 98년의 2백7만9천달러의 3.7배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또 올해 7월까지의 수출도 4백50만6천달러에 이르러 1백66만9천달러에 머물렀던 전년 동기보다 무려 2.7배 성장,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의 실적이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세배 가까이 추월한 것을 비춰볼 때, 수출이 집중돼 있는 하반기에 가속도가 붙으면 올 한해 1천만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가스보일러 관련 수출수량이 기하급수적으



1998년 현재 두개의 석유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그 하나는 북한 자체기술로 진행되고 있는

남포 앞바다와 평안남도 안주지역에 대한 시험시추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회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탐사 프로젝트이다.

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은 그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출단가가 낮아지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스보일러 관련 부품의 수출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완성품 위주로 수출이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부품의 수출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수출집계량은 늘어나지만 수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올 해 7월까지의 수출금액 4백50만6천달러 중 중국물량은 3백66만4천달러로 81.3%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수량도 11만7천여 개 중 9만3천여개로 80%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7백60만8천달러 중 3백87만달러로 50.9%의 편중을 보인 지난해 보다도 중국의 의존도가 더 커진 결과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지난해 2백59만9천달러의 실적을 올리며 수출실적 2위를 기록했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실적이 올해에는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과 함께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지역의 수출은 올해 7월 기준 수출 대상국실적 3위와 4위를 기록하며 아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의 제조업체별 수출실적은 중국 내수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동보일러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대우전자, 귀뚜라미, 동양매직 등이 뒤를 이었다.

<가스보일러 수출 변화 추이>

(단위:천달러)

년 도	금 액	수량(U)
1992	100	195
1993	577	841
1994	2,820	7,063
1995	2,143	5,410
1996	1,301	6,044
1997	1,126	1,897
1998	2,079	6,175
1999	7,608	31,939
2000(1~7월)	4,506	117,213

<가스보일러 전년대비 수출현황>

(단위:천달러)

월	1999		2000(1~7월)	
	금액	수량(U)	금액	수량(U)
1	2	42	372	2,191
2	3	9	203	595
3	108	270	519	95,598
4	254	1,106	1,137	6,799
5	244	1,053	495	1,893
6	808	2,576	1,179	6,836
7	247	1,511	600	3,301
8	434	1,269		
9	3,154	4,817		
10	785	4,723		
11	694	2,629		
12	873	12,134		

<가스보일러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천달러)

순위	국가명	1999		2000(1~7월)	
		금액	수량(U)	금액	수량(U)
	합계	7,608	31,939	4,506	117,213
1	중국	3,870	28,920	3,664	93,782
2	홍콩	210	817	369	1,082
3	칠레	175	581	97	759
4	우루과이	73	150	76	212
5	폴란드	0	0	72	179
6	방글라데시	50	65	54	2
7	러시아	352	511	54	78
8	브라질	23	42	52	20,933
9	뉴질랜드	23	65	26	73
10	아르헨티나	21	36	13	18
동원	아르헨티나	2,599	5	0	0